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함과  
아는 것을 애써 난 척하지 않고도  
자신의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가 있는 사람

돋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비치는  
거울같은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남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선한 눈을 가지고  
온유함이 있는 사람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남의 행복을 기뻐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지닌 사람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잔꾀를 부리지 않으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깊은 배려가 있는 사람

잠깐동안의 억울함과 쓰라림을  
묵묵히 견뎌내는 인내심을 가지고  
진실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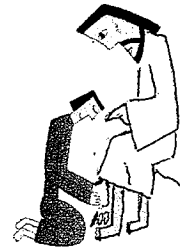
꾸며진 미소와 외모 보다는 진실된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을 정갈하게 다듬을 줄 아는 지혜를 쌓으며,  
나눠주는 기쁨을 맛보며  
행복해 할 줄 아는  
소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학창시절의 영화▶ 에덴의 동쪽  
성경속의 내용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을 영화로 만든  
“에덴의 동쪽”. 청바지 차림의 어슬렁 거리는 모습이  
불량하고 반항끼 가득한 청년의 모습이지만 고독과  
사랑에 목마른 눈빛은 제임스 딘을 하룻밤사이 유명케  
만들었습니다. ‘이유없는 반항’ ‘자이안트’...그  
러나 요절한 배우. 누이들이 세광노래집을 펴서 부를  
때 걸거로 들으며 배웠던 주제곡 “에덴의 동산”.  
“에덴의 동산은 저물어 가는구나, 그 빛을 잃고서 시  
들어 가는구나. 낙원에 맺어진 꽃송이 쉬지 않고서 피  
나니 슬퍼 말아라 마음과 마음속에 행복의 노래 부를  
날 있으리라”. 오렌만의 노래, 오렌만의 누이생각!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4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10월 16일
☎ 369-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이유



그때가 어떤 때였던가요?  
여자가 남자의 재산목록 1호로 여겨질 만큼 물건 취급을 당하던  
시절,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는 썩 빼냈던 시절, 그런데 왜 여자  
인 내게 첫 번째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냐구요?

예수님이 ‘머리 돌 곳조차 없어’고생하며 돌아다니실 때 나는  
그곳에 함께 있었지요(누가 8:1-3)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나는 그곳에 있었어요(마가 15:40).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에도 나는 그곳에 있었구요  
(마가15:47).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할 때에도 나는 그곳에 있었답니다(마태27:61)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도 나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빈 무덤’, 그곳에 가 있  
었지요(마가16:1-2).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황망함 속에 다시 숙소로 돌아간 후에도 나는 무덤 밖,  
그곳에 여전히 울면서 서 있었답니다(요한20:11).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최초로 나타나신 그곳,  
그곳에 나는 또 약속처럼 있어야 했던 것이지요(요한20:13-18).

이래도 그 까닭을 모르시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내가 기도하기위해서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신다

◀인품따라 행하기▶  
사랑해야 할 세사람  
현명한 사람  
덕있는 사람  
순진한 사람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34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48 (고전13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3675장	
기도 Pray		김교섭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5:8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마음이 청결한 자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02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김용석, 최신태 집사 가정)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본당 뒷편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10월의 예배위원◆

일자	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안내
2	최재학	박영태	조재근, 방명아	<현관> 김종건 이광희
9	현석호	박재양	교역자	
16	김교섭	박정자	김용석, 최신태	<본당> 노은숙 정희자
23	정희자	박태원		
30	김순자	박하림	김상덕, 박제란	

### ◆10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2	이웃교회참석수요예배(5) 구역예배(7일)
9	믿음의어머니기도회(11)
16	
23	
30	이삭줍기주일 당회, 선교회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2. 전도하지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저녁 2시

- 교우소식,
  - <이사> 정덕수 장로, 김순자 권사 ☎ 832-8100, 125A Colwill, Massy
  - <오빠 장례마치고 귀국> 김경숙 집사, 막내를 유난히도 사랑해 주던 오빠와의 이별, 이제는 가슴에만 묻고 지냅니다. 주님안에서 위로를 전합니다.
  - <전국체전 참가> 김영길 집사, 해외동포 뉴질랜드 테니스대표선수로 참가중.
  - <회복> 임병숙 권사,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 <부상> 장현중 장로, 팔 뼈에 금이 가는 부상으로 깁스. 어색하지만 재미도 있는 왼손 악수 나누며 뼈가 잘 붙도록, 깁스 안쪽의 가려움(?) 잘 견디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성국 목사> 한국방문(16일-27일) (1)부친방문, 위로 (2)2006년 목회자료수집 (3)모범된 교회 탐방. 이 목적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부탁: 우리가 지원하는 민지영 선교사님께서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입은 "캐쉬미르" 에서 선교사역중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청년부의 "단기선교를 위한 선교비용 모금 Sausage Sizzle" (\$2)
  - \*우리 청년들이 2월에 인도 단기선교를 다녀오려합니다. 저들이 믿음과 세상을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저 시장끼만 속이는 빵 위의 소세지이지만 청년들에게는 더없는 용기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새벽예배 <금요일 새벽5:55>
  -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새벽에 홀로 일어나 나서는 길, 존재의 희열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 세례신청
  - \*14세 이상, 꾸준히 교회출석 1년이상(타교회 포함)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교우께서는 신청하여 주십시오(문의:교역자)

### ◀착한 시인들▶ 당신의 편지

한용운

당신의 편지가 왔다가에  
꽃밭 매던 호미를 놓고 떼어 보았습니다  
그 편지는 글씨는 가늘고 글줄은 많으나  
사연은 간단합니다  
만일님이 쓰신 편지라면  
글은 짧을지라도 사연은 길 터인데

당신의 편지가 왔다가에  
바느질 그릇을 치워 놓고 떼어 보았습니다  
그 편지는 나에게 잘 있느냐고만 묻고  
언제 오신다는 말은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님이 쓰신 편지라면  
나의 일은 묻지 않더라도 언제 오신다는  
말을 먼저 썼을 터인데

마음을 담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마음 만큼은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나열하지 않은 단 하나의 글 줄로, 설명하지 않은 침묵으로, 화려하지 않은 눈빛만으로도 마음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살다보니 어느새 마음의 교감보다는 각이 진 이해관계와 날이 선 경쟁이 만나지는 사람과의 사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목회 초년병 시절, 함께 하던 여전도사님이 목사가 되어 소식을 전해 준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